

국어 기출해설

해설 - 유두선 교수(남부행정고시학원)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 ②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③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④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1. 정답 ①

해설 ① ‘지연하다’는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 ‘연장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본래보다 길게 늘어나다 또는 어떤 일이 계속되다라는 의미로 내용과 거리가 멀다. 주어진 문장은 뒤로 미루다, 연기(延期)하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② 타락(墮落), 몰락(沒落)

③ 근본(根本), 근간(根幹)

④ ‘금방’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후에 ‘방금’은 말하고 왔는 시점보다 조금 전에 의미로 쓰였다.

문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2. 정답 ③

해설 ③ ‘안되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로 붙여 쓴다.

문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ㄷ: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ㄷ: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3. 정답 ④

해설 ④ ‘ㄷ’은 ‘-하시오’는 상대에게 ‘합쇼’할 자리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
 ‘ㄷ’은 ‘모시고’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높임이다.

오답풀이

- ① ㉠께서, 시 -> 주체높임
 ㉡께서, 댁, 계시다 -> 주체높임
- ② ㉠ 바니다, ㉡ 바니다, ㉢ 오 -> 상대높임
- ③ ㉣ 께서, 댁, 계시다 -> 주체높임
 ㉤ 모시고 -> 객체 높임

문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②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③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④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4. 정답 ②

해설 ② ‘비교적’은 ‘편리한’과 ‘낮은’을 꾸미는 부사

오답풀이

- ① 관형사, 대명사
- ③ 의존명사, 조사
- ④ 명사, 부사

문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吾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

5. 정답 ②

해설 ② ‘어로불변’은 ‘어’와 ‘로’의 글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란 뜻으로 문장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권토중래 : 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쌓아 다시 그 일에 착수함.

③ 오불관언 :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간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르는 말.

④ 양두구육 :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쩍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6. 정답 ①

해설 난초를 기르면서 겪었던 일을 ‘예시’하고 결말에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을 갖게 된다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제시하였다.

문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①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흘으니 넷 물이 이실쏜야
 人傑도 물과 ㄱ으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 ②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③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흘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러 예어 가는고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나
 이시랴 헛더면 가랴마는 제 구뜯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헛노라

7. 정답 ②

해설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구체적인 공간 개념으로 형상화한 것을 찾으면 된다.

② 무형의 시간 개념을 ‘허리’또는 ‘구뵈구뵈 퍼리라’와 같이 공간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문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8. 정답 ③

해설 ③ 휘두르+어 -> 휘둘러 (르 불규칙)

자르+아 -> 잘라(르 불규칙)

오답풀이

- ① 누르+어 -> 누르러(러 불규칙)
 오르+아 -> 올라 (르 불규칙)
- ② 이르+어 -> 이르러 (러 불규칙)
 구르+어 -> 굴러 (르 불규칙)
- ④ 부르+어 -> 불러 (르 불규칙)

푸르+어 -> 푸르러 (러 불규칙)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9. 정답 ④

해설 답지에 핵심어를 표시한 후에 읽으면서 답지를 삭제하자.

④ 마지막 단락에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이라는 개념을 썼다고 했으므로 ‘영웅으로 재평가’했다는 말은 틀렸다.

오답풀이

① 첫째 단락에 ② 둘째 단락에 ③ 셋째 단락에서 찾을 수 있다.

문 10. ㉠ ~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① | 論議 | 論據 | 論駁 | 論題 |
| ② | 論議 | 論制 | 論遽 | 論搏 |
| ③ | 論意 | 論旨 | 論難 | 論述 |
| ④ | 論意 | 論志 | 論據 | 論題 |

10. 정답 ①

해설 ㉠ 논의(論議)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 논거(論據) : 어떤 이론이나 논리의 근거(논리적인 근거)

㉢ 논박(論駁) :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논제(論題) :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문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 ②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③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④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

11. 정답 ②

해설 ② 앞뒤 문장이 대구, '행복의 문'은 비유, 전체 내용이 공중도덕에 관한 내용
오답풀이

- ① 대구와 비유 표현이 없다.
- ③ 대구 표현이 없다.

④ 대구와 비유 표현이 없다.

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12. 정답 ④

해설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잔디의 고어는 ‘잔되’, ‘버티다’의 고어는 ‘벗되다’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13. 정답 ①

해설 ① ‘채’는 부사로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체’는 의존명사로 ‘척’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②, ③, ④는 서로 바뀌어 쓰였다.

문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②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③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④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14. 정답 ③

해설 ③ ‘덮밥’은 파생어가 아니라 ‘덮다’와 ‘밥’이 합쳐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문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15. 정답 ②

해설 ② ㉠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오답풀이

- ① ‘앞 뒤 문장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므로 ‘그러나’로 바꾸는 것이 좋다.
- ③ ~다름이 아니다는 일본어 투의 표현이다.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고치는 게 맞다.
- ④ ‘~할 사실은’과 호응하기 위해서는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
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16. 정답 ④

해설 ④ 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 사건을 객관적 표현했다는 말은 잘못이다.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 ②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③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④ 인간의 기억과 상상

17. 정답 ③

해설 ③ 접속어 ‘그러나’ 이후에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내용은 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마지막에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등은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문 18. ㉠ ~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피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 |
|---|-------|----|-----|
| ① |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 이들테면 | 역시 | 결국 |
| ④ | 다시 말해 | 만약 | 그런데 |

18. 정답 ①

해설 ㉠의 앞뒤는 같은 내용이므로 답은 ① ④로 축소되고 ㉡ 뒤에는 예가 나와 있으므로 ‘가령’이 적당하고 ㉢은 앞의 내용을 요약 제시 했으므로 ‘요컨대’가 적당하다.

문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19. 정답 ②

해설 ② 첫사랑 관련 시어를 반복했다고 그것으로 운율이 형성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 ① 울음이 타는 가을 강(청각을 시각화)
 ③ 큰집(인간)과 가을 강(자연)의 대조
 ④ ‘~것네’의 반복으로 예스런 분위기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동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정답 ④

해설 ④ 길동이 수레에서 걸어 나왔다고 했지,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다.

오답풀이

- ①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길동이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는 작가가 개입한 표현이다.

② 넷째 단락에서 장교를 돌아 보며 하는 말을 볼 때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이란 표현을 볼 때 비현실적 요소를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국어선’을 검색하면

해설강의와 2018년 선국어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